

# 정영철 영동군수, 매니페스토 선거공보 '최우수상'

### 지역색 살린 맞춤형 공약 호평 "군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3일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주최한 이번 평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교육감 등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자원조달방안, 철학·비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정 군수는 평소 여러 주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해 짜임새 있고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맞춤형 공약들을 구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정 군수는 공약 준비 단계부터 '군민 모두 행복한 중단 없는 영동발전'을 위해 △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영철 군수가 공무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영동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영동 △농업인과 자영업자, 기업인이 활기찬 영동 △영동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경제, 복지, 문화 등 분야별로 핵심사업과 영동의 새로운 비전을 선거공보에 적극 기입함으로써 군민들이 막연해 할

수 있는 공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점들이 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의 민선8기 공약은 △2대 목표 △5대 전략 △107개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2대 목표로 제시된 대표 공약은 지방소멸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치유관

광 프로젝트, 전국 최대 미래농업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다.

현재 군은 담당부서의 실무 사전검토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약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정부예산확보 등 지속적 보완·환류로 전 공직자들의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민선8기 영동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군민들의 소중한 바램이 깃든 약속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첫 걸음인 공약 구성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분야 10명, 선거공보분야 23명 등 33명의 최우수상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진행하지 않는다. /영동·손동균기자



영동군이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

(사진-영동군 제공)

## 영동군, 민선8기 공약 평가 '최고등급'

### 도내 유일...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 착착 이행중"

영동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전국 시군구의 공약 이행 실천 계획서에 나타난 정책목표,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영동군이 종합 평점 90점 이상에 부여되는 SA 등급을 받았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SA등급을 획득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평가는 지난 1~4월 전국 226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실천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반영한 1차 평가와 지적사항에 대한 각 지자체의 소명과 보완자료의 2차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갖춤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 일치도(PASS/FAIL)의 4개 분야 35개 지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평가 결과 5대 분야 합산 점수가 9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군 단위 지자체는 영동군을 포함해 총 8곳에 그쳤다.

군은 현재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의 비전 아래, ▲2대 목표 ▲5대 약속 ▲10대 핵심과제 ▲60개 공약사업을 확정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3529억원 규모의 최종 60개 공약 사업목록

을 확정해 9월까지 부서별로 공약의 목표, 추진일정, 예산계획을 담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약선포식 및 실천계획 보고회를 가지며 군민들에게 확정된 공약사업을 알렸으며, 주민평가단의 의견 수렴과 영동군의회 의 견청취로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영철 군수는 "공약사업은 군민들의 바람과 믿음이 담긴 소중한 약속인 만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실천 계획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과 결과가 가시화될때 까지 철저히 관리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영철 군수는 지난해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거공보분야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짜임새 있는 공약 구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영동/여정 기자 yee0478@dailycc.net

충북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두각'

# 영동군, 일자리·고용개선 눈부셨다

'同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공로 인정... '최우수상' 수상

충북 영동군이 지난 27일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고용개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광주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일자리와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디지털 혁신 선도,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우수공약·정책 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156개 기초자치체의 364개 우수사례 가운데



영동군이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고용개선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차 심사를 거쳐 172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군은 일자리·고용개선 분야에서 영동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를 배려한 시책으로 '1+1=2, 同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군은 민선 8기 정영원 영동군수가 취임한 뒤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매도시인 콜리번 두마게타시와 지속적인 상호 우호관계 구축으로 계절근

로자의 안정적인 도입기반을 마련했다.

두 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 계절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세심한 노력과 아울러 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2중, 3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또 고용능가내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은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사생활은 보호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고용능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고 능가와의 유대도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정 군수는 "좋은 평가를 받은 이번 우수 사례는 영동군과 계절 근로자가 다 함께 원원하는 동행이라는 바람과 계절근로자는 단지 근로자가 아니라 제2의 영동군민이라는 자합점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능가 일손부족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손동균기자